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와 그에 따른
첼로 교재 비교 · 분석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신 여 훈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와 그에 따른
첼로 교재 비교 · 분석

현 경 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신 여 훈

인 준 서

신여훈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첼로가 예전보다 보편화되어 첼로를 즐기는 인구가 팽창하고 악기가 가지는 시장의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질적 팽창에 비해 첼로 교육과 교재는 정체기를 걷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를 파악하고 초보자 첼로 교재를 분석하며 조사된 첼로 지도 실태와 첼로 교재들을 비교·분석하여 초보자를 위한 첼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명의 첼로 교사를 인터뷰하여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가 어떠한지 조사한다. 이를 위해 초보자 지도 방법에 관한 인터뷰지를 3차 수정, 보완을 거쳐 작성하였다. 이를 가지고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고 인터뷰 내용을 녹취, 전사하여 코딩하였다. 또, 국내·외 최대 도서 판매량으로 선정된 첼로 교재 6종(베르너, 스즈키, 스트링 빌더, 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he ABCs of Cello)을 분석하고 각 교재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앞서 조사된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와 교재 내용을 다시 비교·분석하였다.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 조사 결과, 모든 교사들이 초보자의 정의를 제 1포지션 내에서의 연주가 가능한 정도에 동의하였다. 시작 단계 지도시에는 운궁을 먼저 지도하였고 현의 지도 순서에서는 운궁과 운지에서 D-A-G-C현의 순서로 지도하거나 C-G-D-A현의 순서로 지도하고 있었다. 스케일 지도는 다장조부터 지도 중이었으며, 리듬 지도시에는 4분음표-2분음표-온음표 순서로 지도하고 있었다. 적절한 연주곡 수에 대한 질문에는 19곡 정도의 연주곡이 적당하다고 답하였고 초보자가 초보 기간 동안에 배워야 하는 테크닉으로는 바른 연주 자세와 활 테크닉, 트릴, 꾸밈음 등이 있었다. 초보자를 위한 첼로 교재에서 중요한 요소로는 기본기적인 내용과 흥미 유발 소재가 있었다.

초보자를 위한 첼로 교재 분석 결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교재 3종(베르너,

스즈키, 스트링 빌더)은 시작 단계 지도시 운궁을 먼저 지도했지만 국외에서 사용되는 교재 3종(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he ABCs of Cello)은 피치카토로 개방현 소리 내기를 먼저 하고 있었다. 현의 지도 순서의 경우, 운궁 지도시에는 “스즈키”, “스트링 빌더”,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의 경우에는 D-A-G-C현의 순서로 하고 있었고 “베르너”, “A new tune a day”, “The ABCs of Cello”의 경우에는 C-G-D-A현의 순서로 하고 있었다. 운지 지도시에는 “베르너”를 제외하고는 D-A-G-C현의 순서로 하고 있었다. 스케일의 경우, “베르너”외의 교재는 라장조부터 지도하고 있었고 리듬 지도 순서의 경우에도 “베르너”를 제외한 5종의 교재는 4분음표-2분음표-온음표 순서로 지도하고 있었다. 교재에서의 연주곡은 “베르너”와 같이 연주곡 없이 연습곡만 수록된 교재부터 많게는 128곡의 연주곡이 수록된 “스트링 빌더”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활 테크닉의 경우 모든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었지만 바른 연주 자세는 베르너, “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에서만 다루고 있었고 트릴, 꾸밈음 등의 테크닉은 “베르너”에서만 다루고 있었다. 분석된 각 교재들은 저자가 의도하는 초보자 지도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 기본적인 내용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섞여 구성되어 있었다.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와 교재 분석 내용을 비교한 결과, 교사들은 시작 단계 지도 순서에서 모두 운궁을 먼저 지도하는 반면 “베르너”, “스즈키”, “스트링 빌더”를 제외한 교재 3종(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he ABCs of Cello)은 피치카토로 개방현 소리 내기를 먼저 지도하고 있었다. 현의 지도 순서에서는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 조사 결과 운궁과 운지 지도시 D-A-G-C 혹은 C-G-D-A현의 순서로 지도 중이었던 것처럼 첼로 교재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스케일의 경우에는 다수의 교사들이 다장조를 먼저 지도하고 있는데 반해 첼로 교재에서는 “베르너”를 제외하고는

라장조를 지도하고 있었고 리듬 지도 순서는 “베르너”를 제외하고는 4분음표-2분음표-온음표로의 순서로 지도하고 있었다. 연주곡의 경우 교사들이 초보자들이 초보 기간에 연주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범주의 연주곡보다 많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활 테크닉에 대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실려 있었으나 바른 연주 자세에 대한 내용은 베르너, “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에서만 다루고 있었고 트릴, 꾸밈음 등의 테크닉들이 모두 수록된 교재는 베르너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초보자를 위한 첼로 교육이 양적 팽창에 맞춰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2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첼로의 역사	4
2. 첼로의 구조와 명칭	10
3. 교재의 의미	15
4. 선행 연구	16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20
1.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 조사	20
1) 연구 대상	20
2) 연구 도구	20

3) 연구 방법 및 절차	21
2. 첼로 교재 분석	22
1) 연구 대상	22
2) 연구 방법 및 절차	24
IV. 결과 및 해석	25
1.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	25
2. 첼로 교재 분석	39
3. 첼로 지도 실태와 첼로 교재 비교·분석	44
V. 결론	55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전화 인터뷰 질문 내용	21
<표 2> 연구를 위한 분석 대상 교본	22
<표 3> 인터뷰 대상자 연령 및 학력 분포	25
<표 4> 인터뷰 대상자의 지도 경력	26
<표 5> D, A, G, C현의 순서로 운궁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의견	29
<표 6> D, A, G, C현의 순서로 운지를 지도하는 것에 대한 의견	30
<표 7> 조성 지도 순서에 대한 의견	32
<표 8> 리듬 지도 순서에 대한 의견	33
<표 9> 초보 기간에 배우기에 적당한 연주곡 수에 대한 의견	35
<표 10> 교재 분석 항목	38
<표 11> 1포지션 내에서의 교재 분석	45
<표 12> 시작 단계 지도 순서에 따른 교재 분석	46
<표 13> 현의 지도 순서에 따른 교재의 분석	48
<표 14> 스케일 지도 순서에 따른 교재의 분석	49
<표 15> 리듬 지도 순서에 따른 교재의 분석	50
<표 16> 연주곡 수에 따른 교재의 분석	51
<표 17> 바른 자세와 테크닉 종류에 따른 교재의 분석	52

그림 목차

<그림 1> 페라리의 그림, 1534-36년경	5
<그림 2> Pieter Claesz, 1623년	5
<그림 3> 첼로와 비올	7
<그림 4> 16세기의 첼로 연주 자세	8
<그림 5> 첼로의 구조와 명칭	11
<그림 6> 첼로의 개방현의 배열	12
<그림 7> C현에서의 “레, 미, 파”	31
<그림 8> 첼로 활의 구조와 명칭	14
<그림 9> 활 사용 위치에 따른 기호	14

악보 목차

<악보 1> 첼로 개방현의 음정	12
<악보 2> Tambour on the D string	42
<악보 3>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RHYTHM RAP’	3·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예전에 비해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아져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 따라서 음악적 욕구가 높아졌고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인 1악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 한명당 한가지 악기를 짧게는 2년에서 6년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방과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개설,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지역 사회 문화 센터에서도 다양한 악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시 중이라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손쉽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는 국, 공립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 고등학교 학생 오케스트라 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을 그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질적 팽창에 비해 첼로 교육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일대일 개별 교육에 따른 도제식 교육 방법으로 인해 스승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음악 교육 방법이 대두되었다하더라도 음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의 교육 방법일뿐 각 악기의 특색에 따른 세세한 교육 방법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다 어느 순간 자신의 수업에 대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만 대다수의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방법을 지적 산물로 여겨 공유를 꺼리고 교사들 간의 정보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다. 따라서 동료 교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통해 그 한계를 뛰어넘을 힘을 얻기란 쉽지가 않다.

이러한 양상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첼로 교재를 통해서 더 여실히 드러난다. 첼로 교재의 경우 새로이 출판된 교재 자체가 드물고 출판되었다 하더라도 사용 중인 기존 교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서 외면당하거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절판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세상도, 사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첼로 교육에 있어서는 이 변화가 더디 반영되고 있다. 나의 스승이 배웠던대로 내가 배웠고 내가 배웠던대로 내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물론 변화하지 않는 가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이런 것들이 좀더 세련되게 표현되고 접근 되어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첼로 교육 방법과 교재에는 그러한 세련미를 엿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를 통해서 현재 교사들의 초보자 첼로 지도 방법을 알아봄으로서 교사 스스로 자신의 교육 방법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초보자를 위한 첼로 교재를 분석하여 현재의 지도 방법과는 다른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도록 장려하고 나아가 자신의 교육 방법과의 적절한 접목을 통해 더 나은 교육 방법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초석을 마련해는 것이다.

2. 연구 문제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 단계 지도 순서와 운궁, 운지에서의 현의 지도 순서 및 스케일과 리듬의 지도 순서 등의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첼로 교재 6종(베르너, 스희키, 스트링 빌더, 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he ABCs of Cello)에서의 초보자 첼로 지도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셋째, 조사된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와 분석된 첼로 교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일선에서 첼로를 지도 중인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하였으나 질적 연구 특성상 수반되는 연구 방법, 절차, 자료 수집 등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그 한계로 한다.

또한 교재의 비교 분석은 현재(2015년 3월 기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가장 큰 도서 유통만을 가진 교보문고와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교재 각 3종으로 제한하여 총 6종의 교재로(베르너, 스희키, 스트링 빌더, 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he ABCs of Cello) 국한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첼로의 역사와 첼로의 구조 및 명칭에 대해 알아보고 교재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하도록 한다.

1. 첼로의 역사

첼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비올로네(violone)¹⁾’는 첼로의 현에서 그 명칭이 유래했다. 첼로의 현은 본래 양의 창자로 만들어졌다. 양의 창자를 꼬아서 만들어진 현은 저마다 그 굵기가 달랐는데, 두꺼운 현은 울림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께가 가는 현에 비해 음량도 크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길이가 긴 현이 굵기도 가늘고 더 좋은 소리를 냈기 때문에 첼로의 전신인 비올로네는 가능한 길게 제작되었다. 따라서 비올로네는 ‘큰 비올’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거트현²⁾에 미세한 철선을 감은 현이 개발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철선을 감은 현은 가늘면서도 길이가 짧았으며 이러한 현의 변화로 악기의 크기도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악기에 ‘비올론첼로(violoncello)³⁾’ 즉 ‘작은 비올’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으며, 이로써 첼로는 큰 비올과 작은 비올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명칭을 지니게 된다.³⁾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비올론첼로’라는 명칭으로 악기를 지칭하는 출

1) 큰 비올라라는 뜻. 16세기에는 베이스 감바, 즉 베이스보다 5도 또는 1옥타브 낮은 콘트라바스 감바를 가리켰다. 17, 18세기에는 4 또는 5현의 16ft. 울(律)의 현악기도 이렇게 불렸다. 지판 위에 프렛을 감아서 사용했다.(출처 : 파플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2002. 1. 28, 삼호뮤직)

2) 거트현 : 양(羊)의 소장(小腸)을 정제해서 만든 가는 줄. 라켓 줄이나 바이올린 계통의 현악기 또는 하프 등에 사용한다.

3) The New Grove, 19권, p.856

판물도 많아졌지만, 18세기까지도 ‘비올로네’ 라는 명칭은 여전히 사용되었다.

이렇듯 시대와 장소에 따라 악기의 명칭과 크기가 달랐던 첼로는 그 전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어렵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알프스 산맥의 남쪽 지역에서 오늘날과 같은 첼로가 등장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명칭과 크기, 그리고 조율법에 있어서 오늘날과 같은 첼로의 모습이 나타났던 유럽 남부 지역은 첼로 발전의 단면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소로 전해진다. <그림 1>은 16세기 악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가우덴치오 페라리(Gaudenzio Ferrari, 1471년 경-1546)⁴⁾의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첼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악기의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1> 페라리의 그림, 1534-36년경.⁵⁾ <그림 2> Pieter Claesz, 1623년.⁶⁾

4) 가우덴초 페르라리 [Gaudenzio Ferrari] : 이탈리아의 화가, 조각가. 피에몬테 지방 바르두지아에서 출생, 밀라노에서 사망. 마르티노 스파초티(Giovanni Martino Spanzotti, 1455년 경~1528년경)에게 배웠고, 브라만티노, 페르지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영향도 받았다. 16세기 롬바르디아의 대표적 예술가의 한사람으로서, 광활한 풍경과 인물과의 결합을 특색으로 하여, 때로는 바로크에 앞장서는 움직임이 격한 극적인 작품도 제작했다. 또한 베르첼리의 산 크리스토포로 성당 벽화(1532~34)의 색채는, 베네치아 파예의 관심도 보이고 있다. 기타의 대표작은 사크로 몬테 바랄로 성당의 프레스코 화군과 조각군(1520~28)이 있다.(출처 : 미술대사전 인명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5) 그림 출처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26&contents_id=11746

6) 그림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Pieter_Claesz

첼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악기를 제조한 제조가로 크레모나에서 활동한 안드레아 아마티(Andrea Amati, 1511년경-1577)⁷⁾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브레시아에서 활동한 가스파로 다 살로(Gasparo da Salo, 1540-1609)⁸⁾와 그의 제자 지오 파올로 마지니(Gio Paolo Maggini, 1580-1630년경)를 들 수 있다. 초기의 첼로도 바이올린의 전신과 마찬가지로 악기의 목(Neck)이 몸통과 평행하게 뺀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이후 첼로의 목을 뒤쪽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제작하면서 브릿지에서 몸통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증가되어 현에서 악기로 전해지는 힘이 커지게 되었으며, 이로써 더 큰 음량의 소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18세기 초에 이르러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Antonio Stradivari, 1644-1737)⁹⁾는 몸통의 길이가 75-76cm인 첼로를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 이 길이는 첼로의 표준이 된다. 지금까지도 후대의 많은 제작자들이 현악기 제조의 명가라 할 수 있는 스트라디바리의 첼로를 모방하여 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750년대까지도 스트라디바리의 첼로보다 더 큰 사이즈의 첼로를 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18세기에도 다양한 사이즈의 첼로가 제작되었다.

첼로와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비올은 꽤 많은 차이를 보인다. 눈으로 보이는 외관상의 차이는 악기 몸통의 모양과 현의 개수의 차이이다. 첼로는 바이올린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비올은 몸통 부분이 바이올린 족의 모양과 다른 곡선을 그리고 있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첼로는 현이 4개, 비올은 보

7) 안드레아 아마티(Andrea Amati, 1511년경-1577) : 첼로의 최초 제작자로 1572년에 ‘킹 아마티’ 라는 첼로를 만들었다.(출처 : 위키백과)

8) 가스파로 다 살로(Gasparo da Salo, 1540-1609) : 현존하는 바이올린 악기의 형태를 만든 악기 제작자이자 더블베이스 연주자. (출처 : wikipedia)

9)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Antonio Stradivari, 1644-1737) : 니콜라 아마티의 제자로서 1665년부터 자기의 이름을 넣어 바이올린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생애에 1100개의 바이올린을 제작했다고 하며, 그 외 많은 비올라와 첼로도 제작했다. 그 중에 약 500개의 바이올린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하는데, 진품으로 확인된 것은 50~60개 있다고 한다. (출처 : 음악의 역사, 1996. 9. 10, 한국사전연구소)

통 현이 6개라는 점도 확연한 차이라 할 수 있다. 비올의 경우 4개, 5개 현을 갖는 악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저음을 내는 7번째 현이 있는 것도 있다. 또한 오늘날의 기타와 같이 비올의 지판이 ‘프렛(Fret)’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도 두드러지는 차이이다.



<그림 3> 첼로(왼쪽)와 비올(오른쪽)¹⁰⁾

16세기에는 첼로를 바닥이나 스톨에 내려놓고 비스듬하게 연주했는데, 이러한 연주 자세는 175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¹¹⁾ 1700년 가까이 되면서 연주

10) 그림 출처 : 첼로와 비올 (출처: Wikimedia)

자가 무릎 사이에 악기를 두고 연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악기를 몸에 더욱 밀착시켜 연주하는 자세를 통해 연주자는 왼손의 운지법과 오른손의 활 테크닉을 더욱 민첩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4> 16세기의 첼로 연주 자세¹²⁾

1700년 이전 마지니와 아마티 가문이 작은 크기의 첼로를 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이 보다 작은 크기의 첼로 전형을 제시한 제조가는 안토니오

11) The New Grove, 3권, p.809

12) 그림 출처 : http://www.thecipher.com/viola_da_gamba_cipher-6.html

스트라디바리였다. 스트라디바리는 1707년경, ‘forma B’, ‘forma B piccola’ (piccola는 이탈리아어로 ‘작은’이라는 뜻이다)라는 라벨의 악기를 제작하여, 첼로의 크기를 축소시키는데 성공했다. ‘forma B’ 라벨의 모델은 스트라디바리가 1680년에서 1701년 사이에 제작했던 30개의 첼로보다 길이가 더 짧고 폭이 좁은 것으로, 길이는 75-6cm, 최대폭은 44.5cm로 제작되었다.

이처럼 18세기에 첼로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첼로 내부의 저음울림대(베이스 바, Bass Bar)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목 부분은 더 가늘고 길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연주자가 4옥타브의 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지판의 길이가 길어졌다. 엄지 손가락을 지판 아래에 대는 것은 물론 줄 위에 수직으로 위치시키는 엄지 포지션(thumb position)을 이용해, 높은 음역대의 소리도 연주할 수 있었다. 또한 18세기에는 ‘작은 첼로’라는 의미의 ‘피콜로 첼로’도 제작되었으며, 피콜로 첼로는 오늘날과 같은 4개의 현이 아닌 5개의 현으로 제작되었다. 1680년에서 1740년 사이의 이탈리아에서는 첼로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던 것으로 기록된다. 현악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악기 레퍼토리가 늘어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스트라디바리는 물론이고 북부 이탈리아에서도 우수한 첼로가 제작되었다. 또한 오스트리아 티롤(Tirol)에서 활동했던 야콥 슈타이너(Jacob Stainer, 1617년경-1683)가 독일-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제조가로 활동했으며, 훗날 미텐발트 공방(Mittenwald School)을 설립한 클로츠 가문(Klotz family) 역시 오스트리아 지역을 대표하는 제조가로 꼽힌다.

영국에서는 윌리엄 베이커(William Baker, ?-1685)가 옥스포드에서 ‘영국식’이라 할 수 있는 초기의 첼로를 제작하였다. 이후 18세기 후반에는 프랑스의 제조가들이 첼로 제작에 주도권을 쥐게 되었는데, 18세기 후반에는 루포 가문(Lupot family)이, 19세기에는 장 밥티스트 비욘(Jean-Baptiste Vuillaume, 1798-1875)이 수준 높은 악기를 제작한 제조가로 명성을 떨쳤다.

19세기의 첼로는 18세기에 완성된 기본적인 첼로 디자인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19세기의 첼로 제작자들 역시 이탈리아의 이전 모델, 특히 스트라디바리의 ‘forma B’ 라벨의 모델을 기초로 제작했으며, 이전에 제작된 악기들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을 뿐이다.

19세기에 전형이 만들어진 첼로는 20세기에든 큰 변화 없이 이전의 모습을 이어가게 된다.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제작된 올드 첼로가 여전히 최고의 악기로 평가되지만, 새롭게 제작된 우수한 악기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세기 첼로의 가장 큰 특징은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첼리스트의 수가 증가하고 첼로의 테크닉이 발전하면서, 첼로라는 악기가 솔로 악기로 더욱 확고한 위치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첼로 솔로를 위한 레퍼토리도 이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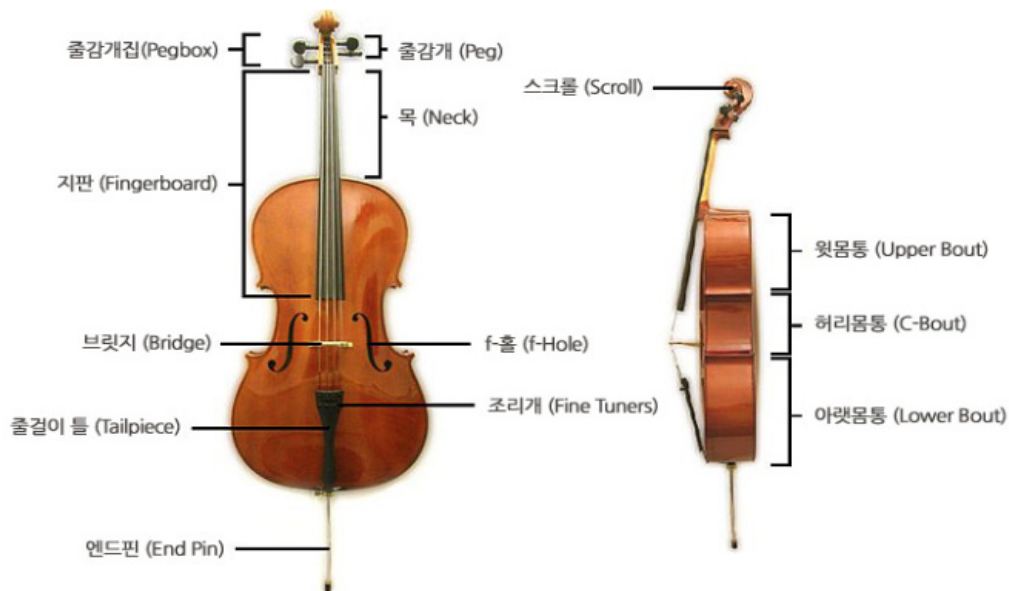
20세기 첼로의 주요한 변화는 첼로 몸통을 바닥에 고정시키는 엔드핀(Endpin 혹은 Spike)이 첼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여성 첼리스트도 위엄 있는 자세로 연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엔드핀의 발명은 곧 20세기에 활동하는 여성 첼리스트의 활약을 약속하게 되었다. 또한 20세기에 대규모의 콘서트 홀이 지어지면서 음량이 큰 악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연주자들은 보다 큰 음량을 얻기 위해 금속으로 만들어진 현 혹은 금속으로 거트를 감은 현을 사용하게 되었다.¹³⁾

2. 첼로의 구조와 명칭

첼로는 단순한 구조이지만 70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섬세한 악기인 첼로는 몸통의 길이 대략 75cm, 전체 길이 약 120cm로 제작된다. 몸통의 앞판과 뒷판이 모두 볼록한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앞판은 보통 부드러운 유럽 가문

13) 네이버 지식백과, “첼로의 기원 및 역사”

비 나무로 만들어지며, 뒷판과 옆판은 딱딱한 나무로 제작되는데 주로 단풍나무가 쓰이는 경우가 많다. 목과 줄감개집, 스크롤 또한 단풍나무로 만들어지며 목에서부터 브릿지로 향해있는 지판은 흑단으로 만들어진다. 앞판은 두 개의 판이 붙여지며, 뒷판은 하나의 나무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두 개의 판이 붙여지는 경우도 있다. 뒷판이 하나의 판으로 된 악기는 단판 악기, 뒷판이 두 개의 판이 붙여진 악기는 합판 악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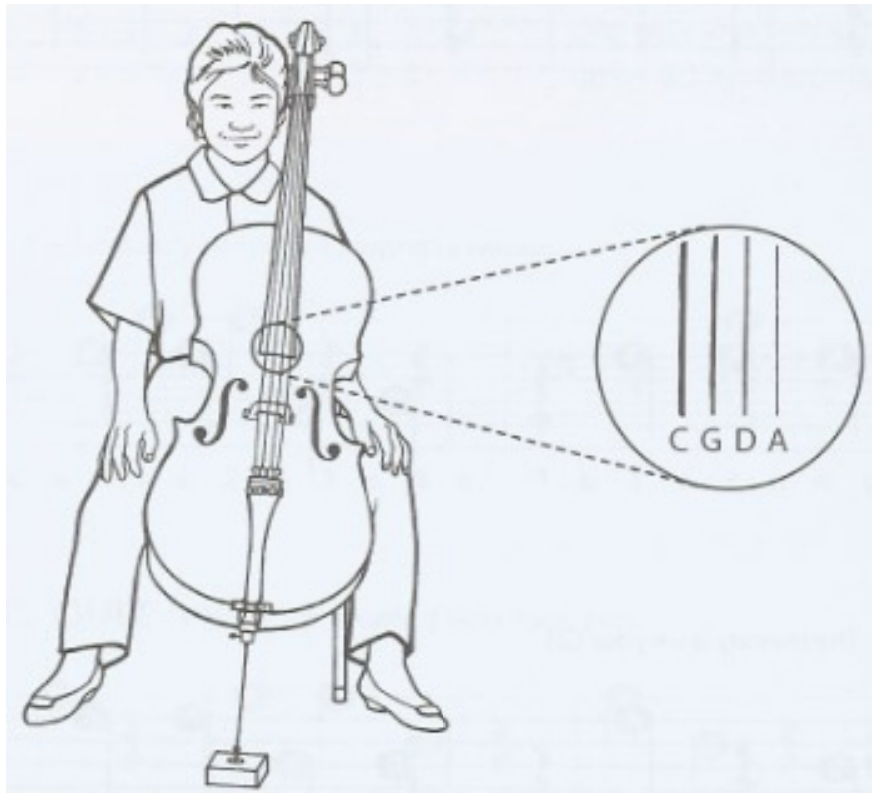
<그림 5> 첼로의 구조와 명칭¹⁴⁾

첼로는 한 종류의 악기지만 연주자의 연령과 신장을 고려하여 여러 크기의 악기가 주문, 제작되고 있다. 성인을 위한 가장 큰 사이즈(full size)의 악기인 4/4를 기준으로(몸통 길이 75cm), 그에 비례하여 작은 크기의 악기는 7/8, 3/4, 1/2, 1/4, 1/8가 제작되고 있다. 사이즈에 따른 첼로 몸통의 평균 길이는 7/8

14) 첼로의 구조와 명칭 (출처: Wikimedia)

(67cm), 3/4 (63.4cm), 1/2 (60cm), 1/4 (53.5cm), 1/8 (49cm)이다.

첼로의 개방현은 연주자가 연주 자세로 앉은 위치에서 오른쪽부터 C, G, D, A현의 순서로 5도 간격으로 튜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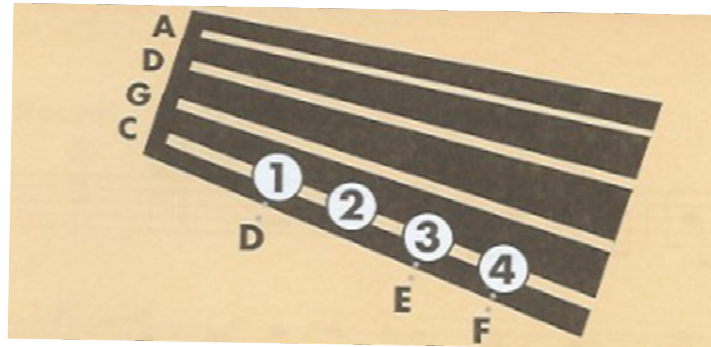
<그림 6> 첼로의 개방현의 배열¹⁵⁾



<악보 1> 첼로 개방현의 음정

15)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p.3

연구 범위 안에 있는 제 1포지션의 개념은 왼손을 이동하지 않고 누를 수 있는 음역대의 음정으로 낮은 음자리표의 낮은 “도” 부터 2옥타브를 올라가서 높은 음자리표의 낮은 “레” 까지의 음정을 말한다.



<그림 7> C현에서의 “레, 미,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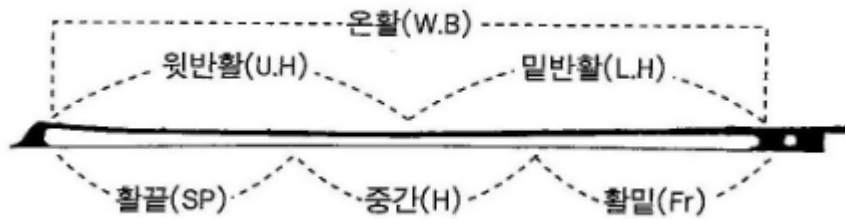
또한 첼로와 함께 사용되는 활은 사냥에서 사용되는 활과 그 모양이 비슷하다는 데에서 ‘활(bow)’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전의 활은 사냥용 활처럼 바깥으로 둥글게 휘어진 모양¹⁶⁾이었지만, 프랑스의 활 제작자 프랑소아 투르트(François Tourte, 1747-1835)에 의해 오늘날과 같은 고전적인 형태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가늘고 긴 활대는 활털 쪽으로 살짝 휘어져 있으며 탄력이 좋은 페르남부코(pernambuco) 나무로 만들어진다. 조임 나사(Screw)는 활털을 조이고 푸는 역할을 하며, 활털걸이(Frog)는 말꼬리 털로 만들어지는 활털을 고정시켜 활털을 고르게 펴는 역할을 한다. 투르트가 제작한 첼로 활의 길이는 72-73.6cm이며, 활털의 길이는 약 60-62cm¹⁷⁾이다. 활의 균형점(balance point)은 활털걸이에서부터 약 18.2cm 떨어진 지점이다. 활의 무게와 균형, 탄력이 좋은 소리를 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16) Wade-Matthews, 2004, p.110~111.

17) Wade-Matthews, 2004, p.111.



<그림 8> 첼로 활의 구조와 명칭¹⁸⁾



<그림 9> 활 사용 위치에 따른 기호¹⁹⁾

18) 첼로 활의 구조와 명칭 (출처: Wikimedia)

19) 이구일, “최신 주법과 지도법에 의한 첼로교실 I” (현대음악출판사, 1998) p.24

3. 교재의 의미

교재²⁰⁾란, 학습자의 측면에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학습할 내용이며, 각종 정보 기기를 통해 제시되는 교수 자료이다. 따라서 교재는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자에게 교육 목표를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의미한다.

알랭 쇼팽(A. Choppin)²¹⁾에 의하면 교재가 갖는 중추적 기능은 대체로 네 가지로 분류된다.²²⁾

첫째는 지시의 기능으로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교과 과정을 지시하는 기능이다. 이 때의 교재란 프로그램의 충실한 하나의 해석이거나 가능한 여러 해석 중의 하나가 된다. 즉 교재는 교과 내용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사회의 기존 집단이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지식과 기술과 노하우의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둘째는 도구적 기능으로, 교재는 학습의 방법을 구체화하는 도구로서 기능한다. 지식을 쉽게 기억하거나 교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노하우나 분석, 결단의 방법을 획득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을 갖는 활동을 제안하는 매체가 된다.

셋째는 교재의 가장 오래된 기능 중의 하나로, 사상적·문화적 기능이다. 18세기 말 근대 국가가 형성되고 그 바탕 위에 교육 체계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교재는 국가나 민족 단위의 언어, 문화 그리고 지배 계층의 가치를 전파하는 주요 매체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교재는 동질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화폐나 국기처럼 국가 주권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젊은

20) 교재 :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도구.(출처 : 두산백과)

21) A. Choppin : 프랑스국립교육연구소 상임연구위원.

22) 한국교육개발원 국제학술회의 “국가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과서 개선” 자료집, 한국 교육 개발원, 2002.

이들을 기존 문화에 동화 또는 교화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기능은 직접적이고 도식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거나 때로는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그러면서도 효과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교재는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참고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교재란 텍스트 또는 기호화된 일련의 자료를 제공하여 그것을 관찰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비판 정신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4. 선행 연구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첼로 초보자를 위한 교재를 선택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초급 과정의 첼로 교재를 분석한 논문과 초급 과정의 일반적 이론과 기초 연주 기법에 관한 논문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보았다.

“초급 과정 첼로 교재의 비교 연구를 스즈키와 스트링빌더 1권을 중심으로” 연구한 최승희(2005)²³⁾는 초급 과정의 스즈키와 스트링 빌더 제 1권의 첼로 교습 내용을 비교하여 유아들이 싫증을 내지 않고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첼로 지도 방법을 구안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아동기의 지능 발달과 음악적 성장의 특징을 연구하고 유아용 첼로 교재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두 교재의 교습 내용을 형식, 조성, 박자, 리듬, 운지법, 셈여림, 슬러(slur),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부분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초급 과정의 어린이들의 음악적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이들 교재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교수자가 각별한 노력으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다든가 현장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23) 최승희(2005). “초급과정 첼로 교재의 비교 연구 : 스즈키와 스트링 빌더 1권을 중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윤경(2009)²⁴의 “J. Werner 첼로 교본의 분석과 첼로 지도에 대한 연구”는 베르너 첼로 교본의 구성과 특징, 그리고 교재 안의 테크닉과 제제곡을 자세히 분석하여 기초 테크닉 연마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하여 베르너 첼로 교본은 테크닉을 연마에 가장 적절한 교재이나 난이도가 높고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적으므로 이를 교재의 특성으로 보고 교사의 지도력과 교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초급자를 위한 첼로 교재 분석과 스즈키 교육에 의거한 지도 방안” 연구를 한 김승화(2010)²⁵는 우리 나라에서 초급 과정의 첼로 교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스즈키와 스트링 빌더, 베르너 첼로 교본 제 1권을 분석하고 그 중, 스즈키 첼로 교본 제 1권의 경우 스즈키 교육에 의거하여 초급 과정의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스즈키 첼로 교본 제 1권은 아름다운 음에 대한 지도를 필요로 하고 바른 음정과 바른 자세로 연습하는데 중점을, 스트링 빌더 제 1권의 경우 1포지션에 대한 학습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첼로를 배우는 학생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마지막으로 베르너 첼로 교본 1권의 경우 음계 중심의 연습곡을 통하여 다양한 포지션을 학습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스즈키의 실제 지도 방법인 놀이를 통한 지도 방안을 연구하여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도했을 때 학습 결과가 효과적임을 확립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도 방안을 통해 학생의 바른 인격 형성과 창의력 계발 및 능력과 개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소라(2013)²⁶의 “초보자를 위한 첼로 교재 연구를 베르너 첼로 교본, 스

24) 유윤경(2009). “J. Werner 첼로 교본의 분석과 첼로 지도에 대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김승화(2010). “초급자를 위한 첼로 교재 분석과 스즈키 교육에 의거한 지도 방안: 스즈키 첼로 교본 1권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트링 빌더 첼로 교본, 스키 첼로 교본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위 3종의 교재를 비교, 분석하여 학습자의 연령과 학습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악기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에게 가장 적절한 교본은 스트링빌더 첼로 교본으로 다양한 기초 테크닉과 단계적인 손잡기를 학습 한 후, 베르너 첼로 교본과 스키 첼로 교본을 병행하여 사용하면 학습자의 기초 테크닉이 빠르게 향상 될 것이며 더불어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과 베르너 첼로 교본에서 포지션 이동을 학습한 후 스키 2권과 3권의 포지션을 사용한 연습곡을 익히게 되면 포지션의 음정 관계에 대한 이해와 손가락 이동을 매끄럽게 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승권(2011)²⁷⁾은 “첼로 초급 과정의 일반적 이론과 기초 연주 기법”에 관해 연구에서 문헌 연구를 통해서 첼로를 잡는 바른 자세와 첼로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악기의 선택에서부터 보관법, 첼로 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교재에 대해서 알아본보고 첼로 교육의 기초 테크닉 교육을 왼손 기법과 활 기법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연습 방법도 제시함으로써 지도자가 첼로 기초 연주 기법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실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 결과 첼로 교재를 분석한 국내 논문의 수도 절대적으로 작지만 그 범위도 베르너첼로 교본, 스키 첼로 교본,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첼로 지도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 3종(베르너, 스키, 스트링 빌더)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 3종(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he ABCs of Cello)을 분석하여 교사 스스로 자신의 교육 방법을 반추할 수

26) 김소라(2013). “초보자를 위한 첼로 교재 연구 : 『베르너 첼로 교본』, 『스트링빌더 첼로 교본』, 『스키 첼로 교본』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음악학과 석사학위논문.

27) 장승권(2011). “첼로 초급 과정의 일반적 이론과 기초 연주 기법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더 나아가 자신의 교육 방법과의 적절한 접목을 통해 더 나은 교육 방법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초석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장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첼로 교육의 실태 조사와 첼로 교재의 비교·분석을 위해 연구 대상 및 연구 도구, 연구 방법, 연구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1.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 조사

1) 연구 대상

인터뷰 대상자는 현재 개인 레슨과 병행하여 초, 중학교 방과후 교실, 백화점과 지역문화센터 혹은 일반사설음악학원 등에서 첼로를 지도 중에 있는 교사들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된 교사들의 성별은 전원 여성이고 연령대는 20대 10명, 30대 8명, 40대 2명이다.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은 모두가 4년제 대학에서 첼로를 전공 중이거나 전공한 사람들이었으며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터뷰 대상자는 2명, 대학교를 졸업한 학사 출신의 인터뷰 대상자는 13명,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 출신의 인터뷰 대상자는 5명이었다.

2) 연구 도구

초보자를 위한 첼로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었다.

본 연구의 인터뷰지²⁸⁾는 연구자가 첼로를 지도하면서 경험한 것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다른 교사들은 초보자를 어떻게 지도하는지의 지도 방법과 이유에 관한 것으로 연구자가 만든 인터뷰지 질문 내용은 담당 지도 교수의 지도 하에 여러 차례 수정·보완되어 최대한 연구자의 주관이 배제되도록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인터뷰 질문지에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0분 내외이다. <표 1>는 인터뷰지 질문 내용을 세부 사항별로 보기 쉽게 구분하여 놓은 것이다.

<표 1> 전화 인터뷰 질문 내용

구분	세부사항	문항번호
기초조사 문항	성별	1
	연령	2
	최종학력	3
	전공	4
	지도 경력	5
	레슨 장소	6
교재 분석 기준 관련 문항	초보자의 임의 규정에 관한 질문	7
	시작 단계 지도 분석에 관한 질문	8
	현의 지도 순서 분석에 대한 질문	9, 10
	스케일 지도 순서 분석에 관한 질문	11
	음표 지도 순서에 관한 질문	12
	연주곡 수 분석에 관한 질문	13
	초보자가 배워야 하는 테크닉 종류에 관한 질문	14
	초보자를 위한 교재에서 중요한 요소에 관한 질문	15
	기존 사용 교재의 장, 단점에 관한 질문	16

3) 연구 방법 및 절차

인터뷰지 작성은 2015년 6월 22일에 시작하여 지도 교수와 상의하여 7월 2일 1차 수정, 7월 26일 2차 수정, 8월 10일 3차 수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전화

28) 부록 참조.

인터뷰는 인터뷰지 작성 완료 후,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 한 이후에 이뤄졌으며 인터뷰가 실시된 기간은 2015년 8월 17일부터 9월 14일이다. 이후, 전화 인터뷰의 모든 내용을 녹취하고 녹취된 내용을 전사하였다. 그리고 전사한 내용을 코딩하여 정리하였다. 이 때 사용된 분류 · 분석 도구는 엑셀이다.

2. 첼로 교재 분석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2015년 3월) 우리나라 교보문고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첼로 교재 3종(베르너, 스즈키, 스트링 빌더)과 미국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첼로 교재 3종(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he ABCs of Cello)을 분석하여 비교해 본다.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6종의 첼로 교재의 세부 사항은 <표 2>과 같다.

<표 2> 연구를 위한 분석 대상 교본

		교재명	저자	출판사	발행년도
1	국 내	베르너 첼로 교본	Joseph Werner	삼호뮤직	1999년
2		스즈키 첼로 교본 1, 2권	Shinichi Suzuki	세광음악출판사	2009년
3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 1, 2권	Samuel Applebaum	삼호뮤직	2000년
4	해 외	A new tune a day	Janet Coles	Boston music	2011년
5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Michael Allen, Robert Gillespie, Pamela Tellejohn Hayes	Hal Leonard	2004년
6		The ABCs of Cello	Janice Tucker Rhoda	Carl Fischer	2014년

Von Joseph Werener의 “베르너 첼로” 교재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베스툰 코리아 에이전시를 통한 원저작권자와의 독점 계약으로 인해 삼호뮤직이라는 출판사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첫 발행은 1999년에 이루어졌다.²⁹⁾

“스즈키 첼로 교본”은 한국 스즈키 음악협회와 세광음악출판사의 협력관계에 의해 제작된 책으로 전 세계의 스즈키 메소드 지도서의 일부이다. 피아노 반주 책을 포함한 첼로 교본으로 음반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교본이다.³⁰⁾ 총 10권으로 구성된 이 교본은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Pablo Cassals)의 제자 중 하나인 요시오 사토(Yoshio Sato)가 스즈키의 동의를 얻어 1970년 초판을 구성하여 출판하였으며 초기에는 “Sato cello school”이라는 책명으로 출판하였으나 이후, 스즈키 바이올린 지도곡집을 기초로 하며 스즈키의 의도에 의해 편집, 구성된 이유로 인해 스즈키와 논의 하여 “Suzuki cello school”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제작하였다. 일본의 바이올린 교수인 스즈키는 30여년에 걸친 교육적 경험으로 1권~10권까지 완성하였다.

“스트링빌더 첼로 교본”은 1985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의 학습을 목적으로 탄생하게 되었으며 1권~5권까지 총 5권으로 단계별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저자인 Samuel Applebaum은 줄리어드에서 Leopold Auer³¹⁾과 함께 수학했으며 Paul Rolland³²⁾, Shinichi Suzuki와 더불어 현악기 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A new tune a day”는 바이올린, 플룻, 기타 등 15개의 악기, 총 28권의 시리즈 교재이다. 원래 이 교재는 1930년대에 C. Paul Herfurth에 의해 지필되었던 것을 이후 보스턴 음악 출판사가 새로이 현대화하여 2006년도에 재발행하였고 기존의 시리즈의 인기가 여전하자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클라리넷,

29) Von Joseph Werener “베르너 첼로 교본” p.2

30)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31) Leopold Auer(1845-1930), 헝가리의 바이올린 연주자, 교육자, 지휘자, 작곡가.

32) Paul Rolland(1911-1978), 헝가리의 비올라 연주자, 교육자.

콘트라 베이스 등의 5종의 악기를 추가하여 시리즈를 병렬 구조로 더욱 확대하여 최근에 다시 재발행하였다. 이 교재는 현재 뮤직트리라는 도서 출판사에서 판권을 사와 우리나라에서 “첼로 어드벤처”라는 이름으로 2011년에 초판이 발행되었다. “A new tune a day cello”는 1권의 교재로 되어 있다.

“Essential elements 2002 for strings”는 현악기를 위한 시리즈 교재로서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5년에 Hal Leonard 출판사에서 오하이오 주립대학 Robert Gillespie 교수가 만들었던 것을 2004년에 Michal Allen, Robert Gillespie, Pamela Tellejohn Hayes의 저자가 공동으로 재집필하여 2004년도에 다시 출판하였다. 이 책은 700만부 이상 판매 되었으며 지금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³³⁾

Janice Tucker Rhoda가 저술한 “The ABCs of cello”는 현악기를 위한 시리즈 교재로서 1999년에 Carl Fisher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출판되기 시작하여 2014년에 다시 새롭게 재출판되었다. 총 3권으로 이뤄진 이 시리즈의 저자인 Janice Tucker Rhoda의 스승은 헝가리 출신의 명바이올리니스트이자 교육자로서도 명성이 높았던 Carl F. Flesch의 제자였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선정된 연구 첼로 교재 6종(베르너, 스키, 스트링 빌더, 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he ABCs of Cello)을 분석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앞서 실시된 전화 인터뷰 결과를 기준으로 교재의 내용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33) 인터넷 아마존 제공

IV.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교사 인터뷰 결과를 통한 첼로 지도 실태를 보여준다. 또한 연구 교재를 분석하고 도출된 첼로 지도 실태와 연구 교재를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1.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

1) 기초 조사 인터뷰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된 교사들의 성별은 전원 여성이었고 연령대는 20대 10명, 30대 8명, 40대 2명이었다.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은 모두가 4년제 대학에서 첼로를 전공 중이거나 전공한 사람들이었으며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터뷰 대상자는 2명, 대학교를 졸업한 학사 출신의 인터뷰 대상자는 13명,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 출신의 인터뷰 대상자는 5명이었다. 이는 <표 3>를 통해 정리하여 살펴 볼 수 있다.

<표 3> 인터뷰 대상자 연령 및 학력 분포

연령	20대	30대	40대
	10명	8명	2명
학력	대학교재	대학교졸	대학원졸
	2명	13명	5명

교사의 지도 경력은 <표 4>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5년 미만인 교사가 5명, 6 ~ 10년인 교사가 5명, 10~20년인 교사가 8명, 20년 이상의 학생 지도 경력을 지닌 교사는 2명이었다.

<표 4> 인터뷰 대상자의 지도 경력

1~5년	6~10년	10~20년	20년~
5명	5명	8명	2명

교사들은 현재(2015년 기준으로) 모두 개인 레슨으로 학생들을 지도 중이었으며 이와 함께 초, 중학교 방과후 교실, 백화점과 지역문화센터 혹은 일반 음악학원에서도 학생을 지도 중에 있었다. 학생들의 연령대는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다양했고 보통은 주 1회, 1시간 수업으로 학생을 지도 중에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 2회, 주 3회로 지도 중인 경우도 있었다.

2)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 인터뷰

가. 초보자의 정의 규정

인터뷰 결과 인터뷰에 응한 인터뷰 대상자 20명, 모두 초보자의 기준을 제1포지션 연주가 가능한 정도로 규정 짓는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연구 범위를 이에 맞게 포지션 이동이 나오기 전으로 국한하였다.

나. 시작 단계 지도

윤궁³⁴⁾과 윤지³⁵⁾의 지도에 있어서는 음악은 소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소리내는 운궁부터 지도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다음은 시작 단계에 대한 인터뷰 답변 중 일부로 교사 J는 일반적인 답변에 대한 예시이고 교사 A와 B는 기타 의견에 대한 예시이다.

교사 J : 모든 악기의 기본은 소리내기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도 게이름을 가르치기 보다는 건반을 눌러서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고 단소나 플룻도 소리 내기가 가능해진 다음에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첼로에서의 활은 그러한 소리 내기 역할을 함으로 활의 비중이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A : 왼손, 오른손 중 어느 손이 더 중요하다 단정짓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운지는 사람의 치아와 같고 활쓰기는 사람의 혀와 같아 각각 그 역할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교사 B : 첼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활 쓰기가 훨씬 중요하겠지만 초보 시절을 놓고만 봤을 때는 어떤면에서는 운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쓰기 보다 음계를 익히는 왼손의 역할이 초보 시절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왼손이 해결되지 않아 오른손이 연주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 현의 지도 순서

① 운궁 지도시 현의 지도 순서

34) 운궁 : 활을 쓰는 방식.

35) 운지 : 악기를 연주할 때 손가락을 고르는 방법.

운궁 지도시 지도하는 현의 지도 순서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분분하였다. 초보자의 경우 G, C현보다 D, A현이 현의 굵기가 얇아 소리 내기가 편하고 초보들이 처음 접하는 연습곡들과 연주곡들이 G, C현보다 D, A현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연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 D, A, G, C현의 순서로 운궁을 지도한다는 의견과 G, C현이 D, A현 보다 연주자의 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초보자들이 활을 그을 때 더 편안하게 느끼며 개방현³⁶⁾을 순서대로 익히게 되면 운지도 순서대로 인지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되었다. 다음은 운궁 지도시 현 지도 순서에 대한 인터뷰 답변 중 일부로 교사 A와 D의 상반된 의견에 대한 예시이다.

교사 A : 첼로 연주시 자주 많이 사용하는 줄부터 지도하는 부분이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교사 D : 초보들이 가장 편하게 그을 수 있는 줄은 몸에서 가장 가까운 C현이기 때문입니다.

<표 5>은 이 질문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주요 의견들과 기타 의견들을 정리한 것이다.

36) 개방현 : 찰현 및 발현 악기에서 왼손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는 경우의 현.

〈표 5〉 D, A, G, C현의 순서로 운궁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의견	이유	인원수
D-A-G-C	G, C현보다 D, A현이 현의 굽기가 얇아 연주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5명
	초보자를 위한 첼로 연습곡과 곡의 경우 G, C현보다 D, A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2명
	교재의 내용과 교재를 쓴 저작자의 권위에 대해 신뢰하기 때문에	3명
C-G-D-A	개방선을 순서대로 익혀야 나중에 운지도 순서대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4명
	G, C현이 D, A현 보다 연주자의 팔에서 가까이에 있어 연주가 더 편하기 때문에	5명
	학생이 좋아하는 소리가 나는 현부터 지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명

② 운지 지도시 현의 지도 순서

운지 지도 순서에 대해서는 D, A, G, C현의 순서보다 C, G, D, A현의 순서로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의 음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운지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우세하였다. D, A, G, C현의 순서로 운지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경우 D, A현이 G, C현에 비해 얇아 처음 운지법을 배울 때 손 끝이 아리는 정도가 덜하고 운지를 지도하는 현의 순서가 학생들의 음계와 운지법 이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연습곡과 연주곡에 자주 나오는 현의 운지부터 지도하는 것이 교육적인 면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D, A, G, C현의 순서로 운지를 지도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운지 지도시 현 지도 순서에 대한 인터뷰 답변 중 일부로 교사 O는 일반적인 답변에 대한 예시이고 교사 A와 B는 기타 의견에 대한 예시이다.

교사 O : 전체 음계를 익힌 다음에 각 줄에 맞게 분할하여 음계를 다시 익히

는 것은 좋지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A : 어느 음부터 가르치느냐는 아이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음을 좋아하는 아이는 저음부터 지도하고 고음을 좋아하는 아이는 고음부터 지도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학생을 지도할 때 어린 학생이 첼로의 저음이 무섭다고 울음을 터트리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음보다는 고음부터 가르치는 일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사 P : 보통 첼로에서 많이 연주되는 줄이 D, A선이기 때문에 이 줄의 운지부터 가르치는 일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표 6>은 이 질문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주요 의견들과 기타 의견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D, A, G, C현의 순서로 운지를 지도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의견	이유	인원수
D-A-G-C	D, A, G, C현의 순서로 운지를 지도하였을 때 운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때문에	3명
	교재의 내용과 교재를 쓴 저작자의 권위에 대해 신뢰하기 때문에	3명
	초보자를 위한 첼로 연습곡과 곡의 경우 G, C현보다 D, A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2명
	D, A현이 G, C현보다 현의 굵기가 얇아서 초보자들이 운지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덜 느끼기 때문에	1명
C-G-D-A	첼로의 저음에 해당하는 C현부터 G, D, A현의 순서로 순서대로 운지를 지도했을 때 음계에 대한 이해가 더 높기 때문에	9명
기타	학생 개인의 성향에 맞게 학생이 좋아하는 현부터 운지를 지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명

라. 스케일 지도 순서

초보자 지도시 어떤 조부터 지도하는 것이 좋다는 질문에는 12명의 교사가 다장조가 좋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의견으로는 라장조 6명, 사장조는 2명이었다. 다장조의 조를 선택한 교사는 다장조의 경우 가장 기초이며 기본적인 조성이고 음계를 “도” 부터 순서대로 지도시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라장조와 사장조를 선택한 교사들의 경우, 초보자를 위한 첼로 연습곡과 곡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조성이기 때문에 먼저 익히두면 연습곡과 연주곡을 할 때 도움 받기 쉽고, 첼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현이 얇은 D, A현에서의 운지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스케일 지도 순서에 대한 인터뷰 답변 중 일부로 교사 B는 일반적인 답변에 대한 예시이고 교사 F와 G는 기타 의견에 대한 예시이다.

교사 B : 저 같은 경우 운궁도 운지도 순서대로 지도하는 편이라 샵이나 플랫이 없는 다장조가 초보들이 처음에 접하기 가장 적합한 조인 것 같습니다.

교사 F : 학생들이 플랫의 개념보다는 샵의 개념을 더 잘 받아들이고 사장조의 조가 첼로를 연주할 때 가장 쉬운 운지 번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G : 활 굿기과 운지를 D, A선 위주로 하였고 때문에 그에 따라 가장 잘 어울리는 라장조부터 지도하는 일이 가장 자연스럽게 배운 내용을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 7>은 이 질문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주요 의견들과 기타 의견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조성 지도 순서에 대한 의견

의견	이유	인원수
다장조	음계를 순서대로 지도하게 되면 다장조의 조성이 익숙하게 느끼기 때문에	6명
	가장 기본적인 서기 초적인 조성이기 때문에	6명
사장조	초보자를 위한 첼로 연습곡과 곡의 경우, 사장조로 쓰여진 곡이 많기 때문에	1명
	사장조의 경우 G, D, A현만을 사용하여 연주하기 때문에 음폭이 라장조보다 넓고 연주하기 편하기 때문에	1명
라장조	초보자를 위한 첼로 연습곡과 곡의 경우, 라장조로 쓰여진 곡이 많기 때문에	2명
	라장조의 경우 D, A현만을 사용하여 연주하기 때문에 운지와 운궁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4명

마. 리듬 지도 순서

개방현에서의 운궁 지도시 적합한 리듬의 순서에 대해서는 12명의 교사가 4분음표 - 2분음표 - 온음표의 순서대로 지도한다고 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초보자의 경우, 긴 활 쓰기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짧은 활 쓰기를 먼저 지도하고 난 다음에 자세가 잡히고 나면 긴 활 쓰기를 지도하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4명의 교사는 온음표 - 2분음표 - 4분음표의 순서대로 지도한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긴 활 쓰기의 연주 자세가 바르게 잡혀야 짧은 활 쓰기도 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머지 4명의 교사는 앞서 언급한 두 의견의 절충점적인 이유로 2분음표 - 4분음표 - 온음표의 순서대로 지도한다고 답하였다. 다음은 음표 지도 순서에 대한 인터뷰 답변 중 일부로 교사 D는 일반적인 답변에 대한 예시이고 교사 A와 S는 기타 의견에 대한 예시이다.

교사 D : 4분음표에서 차례로 음가가 많아지는 걸 가르치고 그게 익숙해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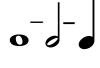


반대로 음가를 나누는걸 가르치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에서 덧셈을 먼저 배우고 뺄셈을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사 A : 음가가 너무 큰 것부터 지도하는 것보다 중간 음가인 2분음표부터 지도하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가가 너무 크면 소리를 유지하는 부분에서 힘이 많이 드는데 초보의 경우 처음부터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긴 음을 연주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교사 S : 처음부터 긴 음표를 지도한다는 일이 쉽지 않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빨라지는 경우들이 있어 바른 자세를 확인하면서 활을 긋고 음정을 내는 일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온음표부터 지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표 8>은 이 질문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주요 의견들과 기타 의견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리듬 지도 순서에 대한 의견

의견	이유	인원수
	긴음표를 소리내는 동안 연주자세를 확인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3명
	온음표를 지도하고 나서 온음표를 나누면 2분음표가 되고 2분음표를 또 나누면 4분음표가 된다는 음표의 개념을 지도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1명
	첼로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 긴 활 쓰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8명
	4분음표에 분음표를 더하면 2분음표가 되고 2분음표에 2분음표를 더하면 온음표가 된다는 음표의 개념을 지도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4명
	4분의 음표의 경우 음가가 너무 작아서 연주 자세를 확인하면서 운궁하기가 어렵고 온음표의 경우 음가가 너무 커서 바른 연주 자세를 유지하면서 연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명

바. 연주곡 수

앞서 전제된 초보자의 기준에서 스즈키 첼로 교재의 경우, 19곡(변주곡 미 포함)이 초보 기간 동안 연주가 가능한 곡 수이다. 스즈키 첼로 교재 연주곡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는 음악 콩쿨에서 콩쿨곡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양의 연주곡 수를 묻는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초보자가 초보 기간 동안에 배웠으면 하는 연주 곡 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11명의 교사가 적당하다고 답하였고, 5명의 교사는 더 늘려야 한다, 3명의 교사는 더 줄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또다른 기타 의견으로는 곡 수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융통성있게 지도해야 한다도 있었다. 다음은 연주곡 수에 대한 인터뷰 답변 중 일부로 교사 A는 일반적인 답변에 대한 예시이고 교사 E와 K는 기타 의견에 대한 예시이다.

교사 A : 절대적으로 정해진 연주곡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 맞춰 적절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E : 초보의 경우, 여러 곡을 접해보면서 음악적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K : 양을 조금 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 시절에는 곡을 많이 다루기 보다는 기본기를 익히는데 더 많은 연습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표 9>는 이 질문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주요 의견들과 기타 의견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9〉 초보 기간에 배우기에 적당한 연주곡 수에 대한 의견

의견	이유	인원수
적당하다	19곡 정도의 연주곡 수가 적당하다	11명
양을 늘려야 한다	다양한 곡을 경험해봐야 하기 때문에	3명
양을 줄여야 한다	연주곡 연주 보다는 연습곡 연주에 집중하여 기본기를 더 충실하게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2명
	스즈키 교재의 경우 변주곡이 너무 많아 실제로는 25곡 이상이 되기 때문에	1명
기타	초보의 특성에 따라 조절	1명

사. 초보자가 배워야 하는 테크닉 종류

인터뷰 질문 중에 초보자가 배워야 하는 테크닉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교사들이 바른 자세와 다양한 활 테크닉(예 : 슬러, 스타카토, 레가토 등등) 트릴과 꾸밈음 등이라고 답하였다. 다음은 초보자가 배워야 하는 테크닉의 종류에 대한 인터뷰 답변 중 일부 내용의 예시이다.

교사 B : 바른 자세로 연주하는 것과 가장 기초적인 테크닉 정도만 있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스타카토나 레가토까지는 좋은데 스피카토나 기타 첼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테크닉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

교사 G : 초보 기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들만을 완벽히 내것으로 소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익혀야 할 첼로 테크닉들이 많이 있지만 초보 기간에는 바른 운지와 바른 활 쓰기를 위한 기초적인 테크닉들만을 익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 N : 바른 손모양을 연습하는 테크닉들과 활을 사용하는 테크닉 등이 있

을 것 같습니다.

아. 초보자를 위한 교재에서 중요한 요소

초보자를 위한 교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에는 다수의 교사들이 기본기와 흥미를 꼽았다. 기본기의 경우, 기초적인 음악 지식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첼로 연주의 기본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충실히 수록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 흥미의 경우, 지도해야 하는 내용들 외에 학생들의 연습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부자료들이 수록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다음은 초보자를 위한 교재에서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인터뷰 답변 중 일부 내용의 예시이다.

교사 J :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다른 첼로 교재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예쁜 그림들도 많고 악보도 크게 인쇄되어 악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에서 초보자들의 연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L : 기본적인 내용의 체계가 통일성 있게 잘 잡혀있고 아이들이 기본기를 충분히 익힐 수 있어야 하며 익힌 기본기를 곡을 통해 연주해 볼 수 있도록 연습곡과 곡들이 균형있게 실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T : 학생들이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내용적인 면에서 구성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여타 악기의 교재들처럼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시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 사용 교재의 장·단점

베르너 첼로 교본의 경우, 기초 테크닉이 다양하게 실려있고 그에 따른 연습곡이 풍부하여 기초 테크닉을 연마하기에 좋은 반면 초보자에게는 난이도가 높고 익숙한 멜로디의 곡이 없어 배우는 학생이 지루해한다는 의견이었다.

스즈키 첼로 교본은 테크닉적인 요소보다는 친숙한 연주곡들로 구성되어 연주곡을 통해 첼로의 여러 가지 주법을 익히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연주 주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반면 테크닉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 다른 교재와 병행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스트링빌더 첼로 교본은 기초 테크닉과 풍부한 연습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제와 다른 연습곡의 수록으로 교재 구성력이 떨어지고 못갖춘 마디의 올림말로 음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활 쓰기를 어려워한다는 의견이었다. 다음은 기존 사용 교재의 장·단점에 대한 인터뷰 답변에 대한 일부 내용의 예시이다.

교사 J : 앞서 했었던 얘기과 같은 이야기인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모든 교재가 저마다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적인 면에서는 많은 교재가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악보의 크기를 키우고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연주 사진이나 곡에 어울리는 그림들을 교재에 실어서 학생들이 너무 어렵게만 느끼지 않도록 다가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K : 스트링빌더의 경우 못갖춘 마디로 시작하는 곡들이 많아 초보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곡들에 재미있는 내용의 제목이 붙어 있고 곡들의 길이가 짧아 초보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교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베르너는 기본기를 익히기에는 너무 좋은 교재이지만 곡 자체가 심오하고 길어 어린 학생들이

많이 어렵게 느끼는 편입니다. 반대로 스즈키는 곡 위주라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에는 탁월하나 기본기를 익히는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사 L : 베르너는 기본기를 익히기에 너무 좋은 교재이지만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반복적인 연습이 많아 학생들이 지루해하고 스트링빌더의 경우 짧은 곡들이 여러 개 실려 있어 아이들이 하기에 적합하지만 내용이 통일성 없이 이뤄진 느낌입니다. 스즈키는 기본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부족해서 기본기를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는 지도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이 교재로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교재 분석 항목

이번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초보자를 위한 첼로 교재 분석 항목 총 8가지를 세워볼 수 있었다. 그 항목은 <표 10>과 같다.

<표 10> 교재 분석 항목

기준	내용
1	제 1포지션 내에서 분석
2	시작 단계 지도 순서 분석
3	현의 지도 순서 분석
4	스케일 지도 순서 분석
5	리듬 지도 순서 분석
6	연주곡 수 분석
7	바른 자세와 테크닉 종류 분석
8	기본 내용과 흥미 유발 소재 분석

2. 첼로 교재 분석

1) 베르너 첼로

베르너 첼로 교재에서 제 1포지션의 범위는 교재의 처음부터 p.43까지이다. 베르너 첼로 교재의 경우, 시작 단계 지도에서는 운궁을 먼저 제시하고 있으며 운궁과 운지시 현의 지도 순서는 C, G, D, A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운지시 현의 지도 순서와 함께 하는 다장조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운궁 지도시에는 온음표의 긴박자 활 쓰기를 지도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한 베르너 첼로 교재는 다른 교재들과 달리 연주곡 없이 연습곡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 테크닉적인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멜로디의 곡이 드물고 교재 자체가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다 보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 시키는 요소는 찾기가 어려웠다.

2) 스즈키 첼로

스즈키 첼로 교재에서 제 1포지션의 범위는 스즈키 첼로 교본 1권과 2권의 p.7까지이다. 시작 단계 지도에서는 운궁을 먼저 제시하고 있으며 운궁과 운지시 현의 지도 순서는 D, A, G, C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운지시 현의 지도 순서와 함께 하는 라장조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운궁 지도시에는 4분음표 - 2분음표 - 온음표순의 지도를 권하고 있다. 연주곡의 경우 변주를 제외하고 총 19곡(스즈키 1권의 17곡, 스즈키 2권의 2곡)으로 되어 있으며 연주곡을 통해 테크닉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구조라 활 테크닉의 내용만 간단히 기술되어 있었다. 바이올린 스즈키의 경우 바른 연주 자세에 대한 시각적 자료가 실려있는데 첼로 스즈키에는 그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았다. 친숙

한 연주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주곡과 반주곡이 CD로 수록되어 있어 학생들이 정확한 음정을 듣고 연습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연습 의지를 독려함으로써 첼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었다.

3) 스트링 빌더 첼로

스트링 빌더 첼로 교재에서 제 1포지션의 범위는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 1권과 2권 전체이다.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은 시작 단계 지도에서 운궁을 먼저 제시하고 있으며 운궁과 운지시 현의 지도 순서는 D, A, G, C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운지시 현의 지도 순서와 함께 하는 라장조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운궁 지도시에는 4분음표 - 2분음표 - 온음표순의 지도를 권하고 있다. 연주곡의 경우 변주를 제외하고 총 128곡(스트링 빌더 1권의 63곡, 스트링 빌더 2권의 65곡)으로 연구 대상 교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연주곡이 수록되어 있다. 많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활 테크닉의 내용만 실려 있었다. 학생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멜로디의 연주곡들이 실려 있고 ‘따끈따끈한 빵’, ‘현명한 늙은 부엉이’, ‘반음 행진’ 등의 아이디어 넘치는 제목들을 연주곡에 붙임으로서 교재에 대한 친화력을 높였다. 다만 보통의 첼로 곡이 거의 내림활로 시작하는 반면 스트링 빌더 첼로 교재에서는 못갓춘 마디의 올림활로 시작하는 곡이 많아 학생들이 시작음 내기를 어려워하고 음정의 도약들이 많아서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렵게 느낄 수 있어 보였다.

4) A new tune a day

해외에서 판권을 사와 2011년도부터 “첼로 어드벤처”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발행중인 “A new tune a day cello”는 총 48페이지로 제 1포지션의

범위는 1권 전체이다. “A new tune a day”은 시작 단계 지도에서 피치카토³⁷⁾로 개방현 소리를 먼저 내도록하고 있으며 운궁시 현의 지도 순서는 C, G, D, A 였고 운지시 현의 지도 순서는 D, A, G, C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운지시 현의 지도 순서와 함께 하는 라장조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운궁 지도시에는 4분음표 - 2분음표 - 온음표순의 지도를 권하고 있다. 연주곡의 경우 45곡이 수록되어 있다. 바른 자세에 대한 설명이 사진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A new tune a day cello”는 연주 주법을 두줄 내외의 문장으로 쉽게 설명해 놓아 연주 주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교사와 함께 하는 연주곡이 <악보 2>와 같이 수록되어 있어 학생들의 앙상블에 대한 감각을 높일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앙상블의 즐거움을 통해 연습 동기를 부여하고 테크닉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곡의 제목 아래 그곡을 연습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적어 놓음으로서 곡에 대한 학생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습곡마다 연주와 반주 CD 트랙 번호가 있어 부교재로 CD를 함께 사용할 때 사용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수록곡이 클래식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재즈, 캐롤 등으로 그 장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37) 피치카토 :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등의 활현 악기에서 활을 사용하지 않고 현을 손가락으로 튕겨 연주하는 주법.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cello exercise. The top section is titled "Pizzicato" and is in 4/4 time. It features two staves: "Student" and "Teacher". The Student part consists of four measures of quarter notes on the D string, with a "Count: 1 2 3 4" written below the first two measures. The Teacher part is marked "*Arco" and consists of four measures of quarter notes, including a sharp sign (F#) in the second measure. Below this are two more staves showing the full exercise, including the pizzicato and arco sections.

<악보 2> Tambour on the D string³⁸⁾

5)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에서 제 1포지션의 범위는 1권 전체와 2권의 p.18까지이다. 시작 단계 지도에서는 피치카토로 개방현 소리 내기를 먼저 제시하고 있으며 운궁과 운지시 현의 지도 순서는 D, A, G, C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운지시 현의 지도 순서와 함께 하는 라장조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운궁 지도시에는 4분음표 - 2분음표 - 온음표순의 지도를 권하고 있다. 연주곡의 경우 총 64곡(“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1권 33곡, 2권 31곡)이 수록되어 있고 바른 자세에 대한 설명은 그림 자료로 나와 있다. 연주곡 악보의 제목 위에 3~4줄 가량의 작곡가와 곡 설명이 부연 설명 되어 있고 각 곡의 연주시 주의 사항과 중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학생

38) “A new tune a day cello” p.11

들이 연습시 참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습곡 전에 ‘RHYTHM RAP’ 이라는 부분을 통해 연습곡의 리듬을 아래 <악보 3>과 같이 리듬만 추려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초견 연주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리듬이 숫자 카운팅과 함께 기재되어 가시적인 측면에서 리듬과 박자에 대한 내용이 알기 쉽게 기보되어 있어 이로 인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74. RHYTHM RAP
Shadow bow and count before playing.

Count: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75. TWO BY TWO

<악보 3>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RHYTHM RAP’ 39)

6) The ABCs of Cello

“The ABCs of Cello” 에서 제 1포지션의 범위는 1권 전체와 2권의 p.25까지 이다. 시작 단계 지도에서는 피치카토로 개방현 소리 내기를 먼저 제시하고 있으며 운궁시 현의 지도 순서는 C, G, D, A 순서인데 반해 운지시 현의 지도 순서는 D, A, G, C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운지시 현의 지도 순서와 함께 하는 라장조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운궁 지도시에는 4분음표 - 2분음표 - 온음표순의 지도를 권하고 있다. 연주곡의 경우 총 56곡(

39)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p.21

“The ABCs of Cello” 1권 29곡, 2권 27곡)이 수록되어 있다. “The ABCs of Cello” 는 스즈키 첼로 교재와 마찬가지로 곡을 통해서 테크닉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Warm-ups’ 라는 부분을 통해 간단한 연습곡들을 연습하고 연주곡을 연습하는 구조인데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음악이 실려 있고 연주곡 수도 많아 학생들의 음악적 경험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연주곡과 반주곡이 CD로 수록되어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고 있다. 다만 첼로의 운지에 대해서만 나올뿐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어 교사의 설명 없이 교재만 가지고 학생 스스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3.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와 첼로 교재 비교

1) 제 1포지션 내에서 분석

전화 인터뷰 결과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이 초보자의 정의를 제 1포지션에서의 연주가 가능한 정도로 규정 짓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맞는 연구 대상 교재의 분석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도록 한다. <표 11>은 그에 따른 연구 범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2〉 제 1포지션 내에서의 교재 분석

연구 대상 교재	분석 범위
베르너 첼로 교본	베르너 첼로 교본(~p.43까지)
스즈키 첼로 교본	스즈키 첼로 교본 1권(전체) & 스즈키 첼로 교본 2권(~p.7까지)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 1 & 2권(전체)
A new tune a day	A new tune a day 1권(전체)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1권(전체) & 2(~p.18까지)
The ABCs of Cello	The ABCs of Cello 1권(전체) & 2(~p.25까지)

2) 시작 단계 지도 순서 분석

전화 인터뷰 결과 운궁을 먼저 지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원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하지만 교재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교재 3종(베르너 첼로 교본, 스즈키 첼로 교본,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에서는 운궁을 먼저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사용 중인 교재 3종(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he ABCs of Cello)에서는 운궁보다는 피치카토(pizzicato)를 통해 소리를 내는 법을 먼저 지도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것은 운궁보다도 더 손쉽게 첼로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교재와 확연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표 12〉는 인터뷰 주요 의견과 그에 따른 시작 단계 지도 순서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2〉 시작 단계 지도 순서에 따른 교재 분석

	대상	의견
교사	20명	운궁부터 지도한다.
교재	베르너 첼로 교본	운궁부터 지도한다.
	스즈키 첼로 교본	운궁부터 지도한다.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	운궁부터 지도한다.
	A new tune a day	피치카토로 개방현을 먼저 지도한다.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피치카토로 개방현을 먼저 지도한다.
	The ABCs of Cello	피치카토로 개방현을 먼저 지도한다.

3) 현의 지도 순서 분석

① 운궁시 현 지도 순서

운궁을 먼저 지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뷰 대상자 모두 의견 일치로 이뤘으나 운궁 지도시 지도하는 현의 순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다. 연구 대상 교재들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반으로 나뉘어 스즈키 첼로 교본,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는 D, A, G, C 순서로 운궁을 지도하지만 베르너 첼로 교본과 A new tune a day에서는 C, G, D, A 순서로 지도하고 The ABCs of Cello는 A, D, G, C 순서로 지도하고 있었다. C, G, D, A 순서로 지도시 활을 쓰는 오른손과 가장 가까운 현부터 소리내도록 함으로 초보자가 소리내기를 편하게 느끼도록 하고 바뀌는 현의 각도를 섬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D, A, G, C 순서로 운궁 지도시에는 자주 사용하는 현부터 지도하도록

함으로 연습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쉽고 상대적으로 현이 얇은 것부터 소리 내도록 함으로서 초보자가 소리를 낼 때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 운궁 지도시 현의 순서는 어떤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내리기 보다는 각 지도 순서에 장, 단점을 잘 파악하여 이를 학생의 개인적인 특성에 맞게 적용시키는데 그 의미를 뒤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운지시 현 지도 순서

또한 국내에서 사용되는 교재들의 경우 D, A, G, C현의 순서로 운지를 권하고 있지만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우 앞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교재에서 권하는 운지 지도 순서보다는 C, G, D, A 운지 지도 순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베르너 첼로 교본의 경우에만 C, G, D, A 운지 지도 순서를 따르고 나머지 교재들의 경우에는 D, A, G, C 순서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나온 것은 인터뷰 때 교사들이 얘기했었던 이유와 같은 맥락적 원인을 가지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가장 충실히 실려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베르너에서 다른 교재들과 다른 유일한 결과가 나온 것은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표 13>는 인터뷰 주요 의견과 현의 지도 순서 분석에 따른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3〉 현의 지도 순서에 따른 교재의 분석

	대상	운궁시 현 지도 순서	운지시 현 지도 순서
교사	10명(운궁시) / 10명(운지시)	D-A-G-C	D-A-G-C
	9명(운궁시) / 9명(운지시)	C-G-D-A	C-G-D-A
교재	베르너 첼로 교본	C-G-D-A	C-G-D-A
	스즈키 첼로 교본	D-A-G-C	D-A-G-C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	D-A-G-C	D-A-G-C
	A new tune a day	C-G-D-A	D-A-G-C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D-A-G-C	D-A-G-C
	The ABCs of Cello	C-G-D-A	D-A-G-C

4) 스케일 지도 순서 분석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우, C, G, D, A 운지 지도 순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에 따라 가장 먼저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성도 다장조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위의 기준 4와 같이 베르너 첼로 교본의 경우에만 다장조의 조성을 먼저 지도하도록 권하고 나머지 교재들의 경우 라장조 조성을 먼저 지도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지를 C, G, D, A 순서로 지도시 초보자들이 쉽게 느끼는 스케일은 다장조이지만 실제 연주곡의 경우 다장조로 연주시 3현을 넘나들어 연주해야 하는 경우 종종 있으므로 활 쓰기 훈련이 숙달되지 않은 경우, 예쁜 소리가 나지 않거나 옆 줄 소리가 나기가 쉽다. 따라서 연주곡을 위한 스케일의 경우 라장조를 먼저 지도하는 것이 좋으나 음계의 자리를 익히고 해당하는 음정과 운지와와의 상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장조의 조성이 적합하다고 생각 된다. 이 또한 학생들의 기본 특성을 잘

파악하여 주어진 지도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표 14>는 인터뷰 주요 의견과 스케일 지도 순서 분석에 따른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4> 스케일 지도 순서에 따른 교재의 분석

	대상	내용
교사	12명	다장조
교재	베르너 첼로 교본	다장조
	스즈키 첼로 교본	라장조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	라장조
	A new tune a day	라장조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라장조
	The ABCs of Cello	라장조

5) 리듬 지도 순서 분석

운궁 지도시 첼로를 처음 배우는 학생의 경우 긴 활 쓰기를 어려워하므로 음가가 작은 음표의 활 쓰기부터 지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는데 베르너 첼로 교본을 제외하고 다른 교재들의 경우 4분음표 - 2분음표 - 온음표 순서대로 운궁 지도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다. 운궁 지도시 온음표의 음가부터 지도하게 되면 팔의 근육이 긴장하여 초보자의 경우 팔이 아플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의미로 팔 근육의 힘이 길러 진다고 볼 수도 있다. 반대로 운궁 지도시 4분음표의 음가부터 지도하면 초보자의 경우 소리 내기가 훨씬 용이하나 소리의 질과 자신의 운궁 자세를 확인할 여유가 없기가 쉽다. 따라서 학생의 연령과 발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음가의 운궁 지도가 필요하다. <표 15>는 인터뷰 주요 의견과 리듬 지도 순서 분석에 따른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5〉 리듬 지도 순서에 따른 교재의 분석

	대상	내용
교사	12명	4분음표 - 2분음표 - 온음표
교재	베르너 첼로 교본	온음표 - 2분음표 - 4분음표
	스즈키 첼로 교본	4분음표 - 2분음표 - 온음표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	4분음표 - 2분음표 - 온음표
	A new tune a day	4분음표 - 2분음표 - 온음표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4분음표 - 2분음표 - 온음표
	The ABCs of Cello	4분음표 - 2분음표 - 온음표

6) 연주곡 수 분석

여기에서 연주곡의 기준은 작곡자가 기재되어 있고 8마디 이상의 곡 형태를 이루며 피아노 반주나 CD 반주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에 따라 연주곡 수를 분석하여 보니 다음의 〈표 16〉과 같았다. 인터뷰시 스즈키의 교재의 연주곡 수를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이 기준치를 넘는 연주곡 수가 수록되어 있는 교재가 4종(스트링 빌더 교본, 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he ABCs of Cello)이었으며 연주곡 수도 기준치인 19곡을 월등히 넘었다. 하지만 스즈키의 경우 연주곡의 길이가 긴 편이고 교재 자체도 연주곡을 통한 지도 방법을 택하다 보니 한 곡을 CD반주 속도에 맞춰 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교재들의 경우 스즈키 교재보다 곡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고 초보자에게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보여진다. 아래의 〈표

17>는 인터뷰 주요 의견과 연주곡 수에 따른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7> 연주곡 수에 따른 교재의 분석

	대상	내용	연주곡 수
교사	11명	19곡 정도가 적당하다.	19곡
교재	베르너 첼로 교본	연습곡만 수록	없음
	스즈키 첼로 교본	스즈키 1권 17곡, 스즈키 2권 2곡(변주제외)	19곡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	스트링 빌더 1권 63곡, 2권 65곡	128곡
	A new tune a day	45곡	45곡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1권 33곡, 2권 31곡	64곡
	The ABCs of Cello	The ABCs of Cello 1권 29곡, 2권 27곡	56곡

7) 바른 자세와 테크닉 종류 분석

인터뷰 결과 교사들이 생각하는 초보자가 배워야 하는 테크닉의 종류에 바른 자세와 활 테크닉, 트릴, 꾸밈음 등이 있었는데 베르너 첼로 교본의 경우 인터뷰 대상자가 언급했었던 테크닉들이 전부 수록되어 있었던 반면 A new tune a day와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의 경우 바른 자세와 활 테크닉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스즈키 첼로 교본,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 The ABCs of Cello의 경우 활 테크닉에 관련된 내용만 실려 있었다. 테크닉의 종류들이 실려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는데 A new tune a day와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의 경우, 자세한 설명과 그림을 첨부하여 테크닉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단순히 테크닉의 이름과 연주 방법만 글로 써놓은 교재도 있었다. 스즈키 첼로 교본,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 The ABCs of Cello의

경우 테크닉의 이름만 기재하거나 간단한 한 줄 글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 아래의 <표 18>는 바른 자세와 테크닉 종류에 따른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8> 바른 자세와 테크닉 종류에 따른 교재의 분석

연구 대상 교재	내용
베르너 첼로 교본	바른자세, 활 테크닉, 트릴, 꾸밈음
스즈키 첼로 교본	활 테크닉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	활 테크닉
A new tune a day	바른자세, 활 테크닉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바른자세, 활 테크닉
The ABCs of Cello	활 테크닉

8) 기본 내용과 흥미 유발 소재 분석

인터뷰를 하면서 교사들이 베르너 첼로 교본에 대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 기본기와 테크닉적인 내용이 충실히 실려있으나 교재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는 이야기였다. 앞서 했던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테크닉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가장 많이 담고 있었던 교재는 베르너 첼로 교본이었다. 하지만 학생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장치가 없어 좋은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초보자들 지도에 있어서는 다른 교재들에 비해 점점 외면받는 추세이다.

스즈키 첼로 교본의 경우 연주곡 자체를 아이들이 쉽게 느끼고 좋아할만한 곡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뷰 당시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선호도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교재이다. 하지만 연주곡만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어 스즈키 교재만을 사용하여 첼로 테크닉을 익히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

때문에 다른 교재와 병행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은 활 쓰기, 제 1포지션 운지법, 다양한 기초 테크닉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습곡 구성이 풍부하여 학생들이 지겨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면이 적고 간단한 테크닉을 쉽게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는 반면 전체적인 난이도가 떨어져 학생들이 연습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구성 면에서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 new tune a day는 15회 레슨으로 구성되어 각 레슨마다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기초 음악 이론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곡이 수록되어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음악 장르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클리닉을 위한 중간 테스트가 있어 자칫 기능 위주로 갈 수 있는 수업에 이론적 지식을 추가하였다. 또한 감상곡과 반주가 수록된 CD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바이올린, 비올라 교재와 연계되어 있어 같은 교재를 사용하는 다른 악기의 친구들과 앙상블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학교 교육에서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는 연주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쓰여져 있어 학생들의 음악적 배경 지식을 풍부하게 해주고 오선의 크기와 음표의 크기가 다른 교재에 비해 커서 악보 보기가 익숙치 않은 초보들의 경우에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음표 안에 게이름이 적혀 있어 게이름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부담없이 악보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페이지마다 음악 이론과 연주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좋은 장치적 역할을 해주고 있다.

The ABCs of Cello는 교본의 맨 뒤에 오선지가 그려져 있어 학생들이 음악 이론이나 음계 공부를 하기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으며 악보의 여백이 넓어 다른 교재들에 비해 악보 보기가 편하다. 또한 레슨 회차에 따른 지도 내용이 구분되어 있고 연습 계획서와 연습 누가 기록지가 있어 학생들의 연습 의욕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테크닉에 대한 설명들이 장황하지 않고 핵심들만 쏘여져 있어 학생들에게 활자가 주는 부담감은 없으나 학생들 스스로 테크닉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초보자의 첼로 지도 실태를 파악하고 첼로 교재를 분석하여 앞서 조사된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와 교재 내용을 다시 비교·분석함으로써 교사에게는 자신의 교육 방법을 돌아보고 본 논문의 연구 내용과 자신의 교육 방법과의 적절한 접목을 통해 더 나은 교육 방법을 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며 현재 출판되어 사용되고 있는 첼로 교재를 교사가 직접 비교, 분석하지 않고도 학생 지도에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첼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 조사 결과, 초보자의 기준을 제 1포지션 연주가 가능한 정도로 규정 짓는데 교사 모두 동의하여 연구 범위를 제 1포지션 내에서 국한 지을 수 있었다. 첼로 교사들은 시작 단계에서 운궁을 운지보다 먼저 지도하였으나 운궁과 운지 지도시 현의 순서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스케일의 경우 다장조, 사장조, 라장조로 지도하는 스케일의 범위가 좁혀졌었지만 그 순서와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고 이는 리듬 지도 순서와 연주곡 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초보자를 위한 첼로 교재에 실려야 하는 내용으로는 바른 자세와 활 테크닉, 꾸밈음, 트릴 등이 거론되었고 기본적인 내용과 초보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실려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다들 의견을 함께 했다.

앞서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에서 조사했었던 영역에 기초하여 선정된 6종 교재(베르너, 스즈키, 스트링 빌더, 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he ABCs of Cello)에 대해 분석하였다. 시작 단계 지도에서 “베르너”, “스즈키”, “스트링 빌더”는 운궁을 먼저 지도하였으나 “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he ABCs of Cello”은 피치카토

로 개방현 소리 내는 법을 먼저 지도하고 있었다. 현 지도 순서의 경우, 운궁 지도시에는 “스즈키”, “스트링 빌더”,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는 D-A-G-C현의 순서로 지도하고 있었으나 “베르너”, “A new tune a day”, “The ABCs of Cello” 는 C-G-D-A현의 순서로의 지도 하고 있었다. 운지 지도 시에는 “베르너” 를 제외하고는 D-A-G-C현의 순서로 지도하고 있었다. 스케일은 다장조와 라장조의 스케일만 제시가 되었지만 라장조가 월등히 우세하였고 리듬 지도 순서는 온음표 - 2분음표 - 4분음표의 순서와 4분음표 - 2분음표 - 온음표의 순서가 제시되었으나 이것 역시 4분음표 - 2분음표 - 온음표의 순서가 우세하였다. 수록된 연주곡 수는 “베르너” 와 같이 연주곡 없이 연습곡만 수록된 교재부터 많게는 128곡의 연주곡이 수록된 “스트링 빌더” 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활 테크닉에 대해서는 모든 교재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바른 연주 자세에 대한 내용은 “베르너”, “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에서만 제시되고 있었고 트릴과 꾸밈음 등에 대한 내용은 “베르너” 에서만 언급되고 있었다. 기본적인 내용과 초보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는 저자의 교육관에 따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와 교재 분석 내용을 비교한 결과, 교사들은 시작 단계 지도 순서에서 모두 운궁을 먼저 지도하는 반면 “베르너”, “스즈키”, “스트링 빌더” 를 제외한 교재 3종(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he ABCs of Cello)은 피치카토로 개방현 소리 내기를 먼저 지도하고 있었다. 또한, 현의 지도 순서에서는 초보자 첼로 실태 조사 결과, 운궁과 운지 지도시 D-A-G-C 혹은 C-G-D-A현의 순서로 지도하는 것처럼 교재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다만 운지 지도시 현의 지도 순서는 “베르너” 를 제외한 모든 교재가 D-A-G-C현의 순서로 하고 있었다. 스케일은 다수의 교사가 다장조를 먼저 지도하고 있는데 반해 교재에서는 “베르너” 를 제외

하고는 라장조 지도하고 있었다. 리듬 지도 순서는 교사와 “베르너”를 제외한 5종의 교재는 4분음표-2분음표-온음표로의 순서로 하고 있었고 연주곡의 경우 보자들이 초보 기간에 연주 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범주의 연주곡보다 많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활 테크닉에 대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실려 있었으나 바른 연주 자세에 대한 내용은 “베르너”, “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에서만 다루고 있었고 트릴, 꾸밈음 등의 테크닉들이 모두 수록된 교재는 “베르너”밖에 없었다. 분석했던 다른 교재들은 큰 맥락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으나 “베르너”만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교재는 저자가 가지는 교육관에 따라 구성되어지는데 베르너 첼로 교본은 기본적인 테크닉을 연마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A new tune a day”와 같은 교재들은 학생들의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접하도록하여 학생들의 연주 흥미를 유발시키고 연습 동기를 촉진시키는 쪽에 초점을 실어 교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초보자의 첼로 지도 실태와 첼로 교재를 분석하고 앞서 조사된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와 교재 내용을 다시 비교·분석함으로써 초보자 첼로 지도 내용과 구성 이유를 살펴봄으로서 초보자 첼로 교육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접근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통해 첼로 교육과 첼로 교재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길 바라는 바이다.

이번 연구를 하면서 초보자 첼로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교사 스스로도 자신의 교육 방법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여 초보자 첼로 교육에 있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국내에서 사용되는 “베르너”, “스즈키”, “스트링 빌더”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있으나 새로 출판된 외국 교재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여 우리나라의 첼로 교육이 정체되어 있다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교재 3종과 미국

에서 사용되는 교재 3종만을 분석하였으나 앞으로 있을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국가의 교재가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이를 바탕으로 초보자를 위한 첼로 교육과 교재에 질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김강희, 이순정, 공누이, 형희전(2010). 『피아노 교수법 개론』, 서울 : 세광출판사.
- 김소라(2013). “초보자를 위한 첼로 교재 연구 : 『베르너 첼로 교본』, 『스트링빌더 첼로 교본』, 『스즈키 첼로 교본』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음악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승화(2010). “초급자를 위한 첼로 교재 분석과 스즈키 교육에 의거한 지도 방안: 스즈키 첼로 교본 1권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경훈, 김신영, 김용희, 방금주, 승윤희, 양종모, 이연경, 임미경, 장기범, 조순이, 주대창, 현경실(2010). 음악 교육학 총론. 서울 : (주) 학지사.
- 오승민(1999). “스즈키 교육에 의거한 첼로 교본 제 1권의 분석과 지도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윤경(2009). “J. Werner 첼로 교본의 분석과 첼로 지도에 대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윤숙(2005). “초등학교 특기, 적성 첼로부를 위한 효율적인 지도법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가원(2008). 바이올린 초보자를 위한 교재의 내용 분석, 한국음악학회, 음악연구 40권
- 이진선(2009). “초등학교 특기, 적성 교육에 있어서 첼로의 효율적 지도 방안 연구 : 스트링 빌더 첼로 교본 제 3권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흥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 출판사.
- 장승권(2011). “첼로 초급 과정의 일반적 이론과 기초 연주 기법에 관한 연

- 구” ,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경(2008). “성인을 위한 바이올린 기초 교재 개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춘희, 이수정, 오정옥, 손영환, 박희숙(2003). 『교재 교구 연구 및 지도법』 , 서울:창지사.
- 최승희(2005). “초급과정 첼로 교재의 비교 연구 : 스즈키와 스트링 빌더 1권을 중심”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2015). “단계적 지도법을 활용한 바이올린 교재 개발”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제미(2013). 비올론첼로의 역사와 기초주법에 관한 연구 : 초급과정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과플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 2002.
- A. Chopin(2002). “서양에서의 교과서와 교과서 연구” , “국가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과서 개선” , 한국 교육 개발원.
- S. Adler, 윤성현 역, 『관현악 기법 연구』 , 수문당 : 1995.
- S. Stanley(1980).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al Instruments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ABSTRACT

The Teaching Realities of Cello for Beginners and the Comparison • Analysis on Cello Textbooks According to it

SHIN YEO HUN

Music Education Major in Department of Education
Sungshin Women' 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generalization in cello more than before led to a bulge in population of enjoying cello and even to the bigger scale of a market possessed by a musical instrument. However, compared to thi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the cello education and textbook are being in stagnant perio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in cello education for beginners by grasping the actual condition of a teaching method of cello for beginners in our country, by analyzing the teaching materials of cello for beginners, and then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cello teaching realities and the cello textbooks, which were surveyed.

This study gives an interview to 20 cello teachers and then inquires into what about the teaching realities of cello for beginners. For this, a interview sheet relevant to a teaching method for beginners was prepared after passing through the tertiary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With this, a telephone interview was conducted. The interviewed contents were recorded, transcribed and then coded. Also, it analyzed 6 teaching materials of

cello(Werner practical method for violoncello, Suzuki cello school, string builder, 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he ABCs of Cello), which were selected as the maximum book sales volume at home and abroad, grasped merits and demerits of each textbook, and comparatively analyzed again the cello teaching realities and textbook contents for beginners, which were surveyed in the above.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teaching realities of cello for beginners, all teachers agreed to which the definition of a beginner is a level available for playing within No. 1 position. Given teaching the beginning step, bowing was first guided. In the sequence of teaching a string, they were instructing in order of D-A-G-C string or in order of C-G-D-A string in bowing and fingering. Teaching a scale was being given from C major. In case of teaching a rhythm, they were guiding in order of quarter note-half note-whole note. The question about proper number of musical programs was given an answer as saying that about 19 pieces of musical programs are appropriate. A technique that a beginner needs to learn at primary level included right playing posture, bow technique, trill and ornament. An important element in cello textbook for beginners included the basic-skill contents and the stimulation materials.

As a result of analyzing cello textbook for beginners, 3 teaching materials(Werner practical method for violoncello, Suzuki cello school, string builder), which are used in the country, were first guided bowing given instructing the primary level. But 3 teaching materials(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he ABCs of Cello), which are used abroad, were being guided first the open-string sounding with pizzicato. The

teaching sequence of a string was made in order of D-A-G-C string given “Suzuki cello school,” “string builder,”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as for guiding bowing, and in order of C-G-D-A string given “Werner practical method for violoncello,” “A new tune a day,” “The ABCs of Cello.” In case of teaching fingering, it was being done in order of D-A-G-C string excluding “Werner practical method for violoncello.” In case of scale, the teaching materials excluding “Werner practical method for violoncello” were guiding from D major. Even in case of the teaching sequence of rhythm, 5 teaching materials excluding “Werner practical method for violoncello” were instructing in order of quarter note-half note-whole note. The instrumentals in teaching materials were diverse in its kinds from the teaching material in which only etude is contained without a musical program like “Werner practical method for violoncello,” up to “string builder” in which 128 instrumentals are included maximally. Bow technique was being commonly addressed in all textbooks. But the right playing posture was being addressed only in Werner practical method for violoncello, “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echniques such as trill and ornament were being addressed only in “Werner practical method for violoncello.” Each of the analyzed textbooks was mixed and composed of the basic-skill contents and the stimulation elements according to a part of being thought to be important given teaching beginners at which an author aims.

In consequence of comparing the cello teaching realities for beginners and the analyzed contents of teaching materials, all the teachers were first guiding bowing in the sequence of instructing a primary level, but were guiding first the open-string sounding with pizzicato in 3 teaching materials(A

new tune a day,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The ABCs of Cello) excluding “Werner practical method for violoncello,” “Suzuki cello school,” “string builder.” The same outcome appeared even in an analysis on the teaching materials of cello as having been under instruction in order of D-A-G-C or C-G-D-A string given teaching bowing and fingering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teaching realities of cello for beginners in the sequence of teaching a string. A number of teachers were guiding C major first in case of a scale, but were instructing D major excluding “Werner practical method for violoncello” in cello textbook, and were instructing the sequence of teaching a rhythm in order of quarter note-half note-whole note excluding “Werner practical method for violoncello.” In case of repertoire, the melodies more than musical programs in the category that teachers think it proper for beginners to play at a primary level were contained. The contents on bow technique were included in common. But the contents on right playing posture were being addressed only in Werner practical method for violoncello, “A new tune a day” , “Essential elements for strings cello.” A teaching material in which all the techniques such as trill and ornament were contained was just Werner practical method for violoncello.

As these researches are continuously carried out even in the future, the cello education for beginners is desired to grow qualitatively in line with quantitative expansion.

부 록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 조사를 위한 인터뷰 질문지

본 인터뷰지는 현재 초보자 첼로 지도 실태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만들어진 것이오니 평소 생각하신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 자료는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1. 성별 (남 / 여)
2. 연령 (20대 / 30대 / 40대 / 50대)
3. 최종학력 (대학교재 / 대학교졸 / 대학원재 / 대학원졸 / 기타)
4. 전공 (첼로 전공 / 첼로 부전공 / 기타)
5. 지도경력 (1~5년 / 6~10년 / 10~20년 / 20년~)
6. 레슨장소 (개인레슨 / 학원 / 방과후 학교 / 문화센터 / 기타)

7. 연구자는 초보자의 기준을 1포지션 연주가 가능한 정도로 임의로 규정 지었는데 이에 동의하시나요? 혹, 위 질문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8. 운궁과 운지 중 먼저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9. 운궁 지도시 현의 지도 순서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0. 운지 지도시 현의 지도 순서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1. 초보자 지도시 어떤 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12. 리듬 지도 시, 리듬 지도의 순서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는 무엇입니까?

()

13. 초보자가 초보 기간에 배웠으면 하는 연주 곡 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14. 첼로에서 초보자가 배워야하는 테크닉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15. 초보자를 위한 교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

16. 현재 사용 중인 초보자를 위한 첼로 교재의 장, 단점을 기술해주세요.

교재	장점	단점

감사합니다.